

# 변혁정치

변혁적 현장실천과 노동자 계급정당 건설을 위한 전국활동가모임

10월 8일  
2012년 월요일

■발행인 : 김소연 김일섭 이호동 ■주소 : 서울특별시 중구 정동 22번지 경향신문사 본관 13층 (우)100-702 ■이메일 : revolparty@gmail.com

## 경제공황에 맞서 노동자계급의 생존을 지키는 길

13일 전국활동가대회 ... 변혁적 현장실천과 노동자계급정당 건설, 투쟁하는 동지가 주체다!

노동자 민중의 삶을 파괴하는 경제공황이 심화되고 있다. 추석 연휴가 끝난 10월 4일 <서울경제>는 “‘끔찍한 피바람’ 내년에 대기업 났친다”는 기사를 1면으로 보도했다. 이 신문은 국내 10대 그룹을 대상으로 한 '2013년 경영계획 전망 설문조사' 결과 10대 기업 중 90%가 '인위적 인력 구조조정을 고려' 하겠다고 답했다고 밝혔다. 국내 10대 기업 중에서 단 한 곳만 '절대로 인위적 구조조정은 없다'고 했다. 그리스와 스페인을 초토화시키고, 유럽을 강타한 경제위기 태풍이 전 세계를 덮쳐오고 있다. 유럽 노동자들이 100년의 투쟁을 통해 쟁취한 성과를 하루아침에 물거품으로 만든 태풍이 아시아에 상륙하면 탐욕의 재벌은 경제위기의 고통을 더욱 더 가혹하게 노동자에게 전가할 것이다. 1998년 겪었던 정리해고와 비정규직화라는 끔찍한 피바람이 또다시 전국을 휘감을 것이다. IMF보다 더 큰 위기가 다가오고 있다.

세계적 대공황은 동북아에 전운까지 물고 오고 있다. 미국을 필두로 한 제국주의 국가들은 경제위기 때마다 전쟁을 위기의 돌파구로 만들어왔고, 그 희생양은 중동의 나라들이었다. 한국과 중국, 일본의 영토분쟁이 심화되고 남북 군사긴장이 높아지면서 한반도가 세계경제위기의 제물이 될 위기가 더욱 높아져가고 있다.

### 노동자 민중의 삶을 파괴할 경제공황

1997년 IMF 이후 50년만의 정권교체를 통해 등장한 김대중 정권부터 노무현, 이명박 정권에 이르기까지 자본가 정당들은 여야를 막론하고 노동자·민중의 호주머니를 털어 재벌의 공간을 가득 채웠다. 경제위기를 핑계로 정리해고법을 만들어 쌍용차 22명을 포함해 수많은 노동자들을 죽음으로 내몰았다. 파견법과 비정규직법으로 900만 비정규직 시대, 고용지옥을 만들었다. 노조법 개악과 민주노조 말살정책으로 노동현장에 용역깡패가 활개치게 했다. 백혈병으로 50명이 넘는 노동자들이 죽어가게 만든 이견희와 10년 동안 불법고용으로 노동자들을 잔인하게 착취해온 현대차 정몽구는 감옥에 가기는커녕 상상을 초월하는 세계적 갑부가 되었다. 재벌은 골목의 빵집,

커피전문점까지 잡아먹으며 노동자와 서민의 삶을 파탄내고 있다.

배고파서 못살겠다는 노동자 민중들의 절망의 신음소리가 터져 나오고 있는데, 야권의 대선주자들은 보수경쟁을 벌이고 있다. 안철수 후보는 “성장 없는 경제민주화는 바위가 하나밖에 없는 자전거”라고 말했고, 문재인 후보는 “노숙도 일정한 고통분담을 해줘야 될 것 같다”고 주장했다. 오죽했으면 <조선일보>의 송희영 논설주장이 박근혜와 안철수, 문재인에 대해 “세 사람의 경제철학은 경제민주화, 복지, 일자리를 위한 성장이 핵심 골격으로 별 차이가 없다”며 “세 후보의 정책 차이를 발견하려면 고성능 현미경이 필요할지 모른다”고 말할 정도다.

### 차이가 없는 대선 후보들

다가오는 경제공황과 제2의 IMF 시대에 여야 정당은 재벌에게 손끝 하나 대지 못하고, 또 다시 노동자들에게 희생과 양보를 강요할 것이다. 절망에 빠진 노동자 민중과 함께 투쟁해야 할 진보정당은 4.11 총선에서 부정선거와 폭력사태로 만신창이가 되었고, 노동현장과 민생을 외면한 '문지마 야권연대'로 노동자들에게 버림받았다. 통합진보당을 만든 세력들

은 정리해고법과 비정규약법을 만들고, 한미FTA와 민영화를 강행하고, 미국의 침략전쟁에 참여하고 해군기지를 만들었던 자들에게 이번 대선에서까지 야권연대를 구걸하고 있다.

노동정치를 바로 세워야 할 민주노총은 통합진보당 지지를 강행하고 민주당 선거운동을 다니며 노동자의 독자적 정치세력화를 길바닥에 내팽개쳤다. 열정과 헌신성이 사라지고, 관료주의와 출세주의, 조합주의로 망가진 노동운동이 진보정치의 몰락을 재촉했다.

어디를 봐도 희망이 쉽게 보이지 않는다. 노동자 민중의 정치는 진실 직전의 상태다. 어디서 희망을 찾아야 하는가? 당연히 다시 한 번 현장에서, 대중의 힘찬 투쟁에서 찾아야 한다. 희망은 이미 현장에서 만들어지고 있다. 쌍용차 노동자들이 23번째 죽음을 막기 위해 온 몸을 던져 싸워 사회적 관심사로 만들었고, 현대차 비정규직과 재능교육 노동자들, 공동투쟁을 벌이고 있는 투쟁사업장 노동자들이 정리해고와 비정규직, 노조탄압 문제를 사회적 의제로 만들어내고 있다. 정리해고제와 파견법 보완이 아니라 정리해고와 비정규직 없는 세상을 만들어야 한다는 것을 투쟁으로 보여주고 있다. 이 투쟁 속에 희망의 씨앗은 움트고 있다.



자본주의 체제를 변혁할 노동자계급정당

이제 현장의 노동자들이 나서자. 변혁적 현장실천으로 무너진 현장을 다시 일으켜 세우고, 지역과 전국에서 연대투쟁을 복원하자. 노동자계급의 원칙을 사수하고 대중투쟁을 통해 파탄에 빠진 자본주의 체제를 변혁해내는 노동자계급정당을 건설하자. 이것이 다가오는 경제공황이라는 거대한 야만의 태풍에 맞서 노동자·민중의 생존을 지키는 길이다.

10월 13일, 변혁적 현장실천과 노동자계급정당 건설을 위한 전국활동가대회는 진짜배기 노동자 정치의 시작을 만방에 알리는 거대한 출발 선언이다. 변혁의 길에 나선 동지들이여! 와서 모여 하나로 단결하자!

변혁적 현장실천과 노동자 계급정당 건설을 위한 전국활동가모임 공동소집권자 김소연 김일섭 이호동

누구도 대신 할수 없는  
우리의 미래  
동지가  
정치의 주체다

2012년 10월 13일(토) 13시 원불교회관 4층에서 전국활동가대회 조직위원회

변혁적 현장실천! 노동자계급정당

전국활동가대회



## 투쟁을 더 잘하기 위해서

사실, 당 혹은 노동자 계급의 정치세력화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고민한 기간이 길지는 않다. 이런 내가 정치세력화에 대한 고민을 시작하고 그 운동을 결단하게 된 계기는, 노동조합 집행부로서의 활동과, 그 활동 과정을 돌아보면서였다. 2009년부터 2년 동안 현대차지부 전주공장위원회 의장으로 일할 때 비정규직 투쟁이 연달아 터졌고, 우리는 온 힘을 다해 연대했다. 연대투쟁에 소극적인 몇몇 동지들은 '이동기 집행부는 비정규직 집행부'라는 말로 소위 '정규직 정서'라는 것을 자극했다.

정말 쉽지만은 않은 투쟁이었다. 스스로 이런 말을 하기는 부끄럽지만, 현장에 있을 때와 집행부로서 일할 때의 행동을 일치시키기 위해 부단히 노력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나는 알게 되었다. 노동해방이라는 신념, 자본주의 철폐라는 신념을 잇는다면, 아무리 강철 같은 사람이라도 망가지는 것은 순간이라는 것을. 또한 알게 되었다. 왜 많은 동지들이 현장에 있을 때와 노동조합의 집행권을 쥐었을 때, 그토록 다르게 행동했는지.

활동가에게 이념과 신념은 얼마나 중요한가. 나는 스스로의 투쟁과정에서 알게 되었다. 그 신념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스스로 더욱 단단해져야 하고, 그렇게 단단한 동지들을 현장에서, 지역에서, 전국에서 결집할 수 있는 조직이 필요하다는 것. 자본주의 철폐라는 신념을 같이하고, 연대라는 경험을 같이하는 동지들이 모인 조직, 그게 노동자의 당 아닌가.

'투쟁만으로는 안 되니까 정치세력화가 필요하다'는 동지들이 있다. 그게 아니라, 투쟁을 더욱 잘하기 위해 정치세력화가 필요하다. 우리가 만들 당은, 그런 당이어야 한다. 정말로 이기고 싶다면, 지금 당장은 질 것을 뻔히 알면서도 싸워야 할 때가 있다. 나는 그렇게 믿는다. 이 믿음을 많은 동지들과 나누고 싶다.

/ 이동기 현대차지부 전주위원회 전 의장

## 투쟁하는 노동자들의 손을 잡고 싸운 사람은 누구인가?

지긋지긋합니다. 여성과 남성, 장애인과 비장애인, 정규직과 비정규직, 그리고 자본가와 노동자. 이 천박한 자본주의는 모든 것을 갈라놓습니다. 이에 맞서 노동운동진영 누구나 '모든 것로부터의 차별철폐'를 목청 높여 외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계급투쟁의 전진을 위해 실천을 조직하려는 의지는 많이 보이지 않습니다.

# 가슴 설레는 '노동자 계급 정당'

정리해고에 맞서 77일간 공장 점거파업으로 벌였던 쌍용차 노동자들이 국가폭력에 짓밟힐 때, 비정규직 노동자가 정규직화를 외치며 분신을 하고, 생사를 넘나들면서 94일 동안 곡기를 끊고, 거리에서 1800여일을 노숙농성을 하며 온 몸으로 투쟁할 때 이 노동자들의 손을 맞잡고 싸우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이제 우리가 그 싸움의 주체가 되고 변혁적 현장실천의 주인공이 되어야 합니다. 노동자계급정당 건설의 주체가 되어야 합니다. 이 첫걸음에 변혁모임이 있습니다. 저는 가슴마저도 설렙니다. 이번만큼은 제대로 한 번 만들어볼 수 있다는 희망이 보이기 때문입니다. 모든 정파가 자신의 울타리를 넘어 함께 당 건설을 이룰 수 있는 확신으로 10월 13일 열리는 변혁모임의 활동가대회를 적극 지지합니다.

/ 유명자 전국학습지노조 재능지부장

## 노동자 후보로 대선투쟁을

비정규직 없는 세상은 가능합니다. 더 나아가 노동이 주인 되는 세상도 가능합니다. 이런 세상은 보수 정치권이나 낡은 진보세력에 기대서는 불가능한 꿈입니다. 지난 역사적 경험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자본의 탐욕과 착취가 지배하는 세상에서 노동자 세상을 만들겠다는 것은 민중과 함께 하는 중단 없는 실천의 결의가 있어야 합니다.

서로 간의 작은 이념의 장벽을 걷어내고 노동자정치의 새로운 실천을 중심으로 굳게 단결하길 바랍니다. 노동자 후보를 중심으로 대선공간에서 비정규직 문제를 비롯한 계급적 의제를 선명히 드러내고 그 속에서 확인된 힘과 역량을 토대로 노동자 계급정당을 만들어 나가길 바랍니다. 노동자 계급정당 건설은 역사적 과업을 반복해서는 안 됩니다. 한발 앞서되 한발만 앞서는 지혜와 실천으로 노동자계급의 신뢰와 지지를 받는 정당이 되길 기대해 봅니다.

/ 황철우 전 서울지하철노조 교육부장

## 노동자 정치세력화의 정답은 실천

2000년 초 민주노동당에 가입하는 것이 노동자 정치세력화의 첫걸음이라 믿고 많은 노동자들이 당원으로 가입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과연 그들이 노동자들을 대변해 줄 수 있는가 의문이 깊어갔다. 노동자들을 대변하기보단 자신들의 기득권에만 혈안이 되어 분당하는 모습에서 실망이 커져갔다. 그것도 모자라 국참당과의 통합을 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실망을 넘어 분노하고 좌절할 수밖에 없었다. 최소한의 애정마저도 앗아가 버렸다. 국참당과 통합할 때 탈당했다.

이번 대선에서 '새누리당은 절대 안 된다'는 논리에 또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노동자들의 하나된 힘을 보여주면 누가 당선되더라도 결코 우리를 무시하지 못할 것이라는 확고한 의식적 투표가 필요하다. 이런 힘들을 기반으로 향후 지자체 선거 등에서 실질적 당선으로 자신감을 갖게 만들어야 한다. 자신만의 기득권을 버리고 노동자들의 대변인으로써 희생할 후보라는 확신과 믿음은 투쟁현장에서 함께 부대끼 때에 형성되는 것이다.

모든 것은 투쟁 현장 속에 답이 있다. 백마디 감언이설은 이제 더 이상 설득력이 없다. 말을 줄이고 실천을 늘려 마음을 움직여야 한다. 노동자 정치 세력화의 정답이다!

/ 최일배 코오롱노조 전 위원장

## 절박한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노동자정치에 나서야

"변혁적 현장실천과 노동자계급정당 건설"을 현장의 투쟁하는 노동자들이 나서고 있습니다. 변혁적 현장실천과 노동자계급정당은 일부 활동가나 정치인들로는 결코 실현될 수 없습니다. 현장에서 투쟁하는 노동자들이 중심이 되어, 현장에서 부터 노동자들이 정치를 고민하고 실천해

나갈 때만이 진정한 노동자계급정당이 건설될 수 있을 것입니다.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노동조합을 결성하는 것도 그렇지만, 정치에 참여하는 것 자체가 어려운 조건에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모든 생활은 정치와 뗄 수 없는 관계에 있습니다. 가장 절박하고 어려운 처지에 있는 비정규직 노동자가 정치에 대해 포기하는 순간 우리의 현실은 결코 바뀔 수 없습니다.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정치에 관심을 갖고 노동자계급의 이해를 실현하는 계급정당 건설과 투쟁에 나설 때만이 이 비참한 현실을 바꿀 수 있습니다.

정리해고, 비정규직 문제는 이미 한국 사회 전반에 만연한 모두의 문제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현실을 개별사업장들의 투쟁만으로는 결코 해결할 수 없습니다. 현대차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모든 사내하청 정규직 쟁취"라는 요구를 포기할 수 없습니다. 변혁적 현장실천과 노동자계급정당 건설을 위해 나선 동지들도 전체 노동자계급의 요구와 이해를 실현하기 위해 함께 힘을 모으고 투쟁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정치의 주인으로 당당히 나서십시오.

/ 송성훈 현대차 이산공장 사내하청지회 지회장

## 노동자정당 건설 현장의 열망 높아

'변혁정치모임'의 토론회는 두 차례 참석했다. 상당히 많은 노동자들이 함께 했다. 통합진보당 사태 이후 현장노동자들이 노동자정당 건설 열망이 많다는 것을 느꼈다. '변혁적 현장실천'은 계급적 이해에 바탕을 두고 노동자의 투쟁을 전투적인 투쟁으로 끌어올리는 것이라 생각한다. 이를 통해 그동안 위축됐던 노동운동이 활발해졌으면 한다. 원칙적 입장과 실천을 통해 증명하고 투쟁하면서 현장과 공감대를 넓혔으면 한다.

노동자계급정당은 여러 단위들의 결이 다르더라도 처음에는 가급적 공감할 수 있는 낮은 수준의 쟁점들을 중심으로 결합해 나갔으면 한다. 연합체 방식의 건설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래야 현실적일 것 같다. 그리고 나중에는 노동자계급정당에 민주노총도 결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번 대선은 박근혜, 안철수, 문재인 등 3자 구도로 가고 있지만 노동자계급 요구는 전혀 반영되지 않고 있다. 현장에서는 박근혜가 이명박 정부의 연장이며 최악이라는 정서가 많다. 노동자독자후보가 출마해서 의미 있는 득표를 하면 좋겠다. 그렇지만 박근혜와 야권단일후보가 박빙이라면 현실 조합원 정서를 반영해 대선판세를 보고 당 건설 주체들이 의견을 모아 판단할 필요도 있다.

/ 김상진 서비스연맹 세종호텔노조 위원장



# 변혁적 현장실천과 노동자계급정당 5문5답



## 1. 진보정당 10년, 왜 노동정치는 무너졌는가?

4.11 국회의원 부정선거와 폭력사태로 만신창이가 된 통합진보당이 노동자들에게 버림받은 이유는 당권파였던 구 민주노동당 경기동부연합 세력의 패권주의가 핵심 원인은 아니다. 통합진보당이 노동자 도시에서 단 한 명의 국회의원으로 당선시키지 못하고, 노동자 도시에서 정당지지도가 반토막난 원인은 이들이 900만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비롯해 노

동자와 민중을 대표하는 정당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2008년 촛불항쟁을 시작으로, 용산철거민과 쌍용차 살인진압에 맞선 투쟁, 기륭전자, 현대차비정규직, 대학청소노동자, 재능교육 등 수많은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처절한 투쟁, 다섯 차례의 희망버스 투쟁에 목숨을 걸고 싸웠던 통합진보당 후보는 없었다. 일터와 거리

에서 투쟁하는 노동자 민중들과 함께 싸우는 정치가 아니라 국회에 갇힌 의회주의 정치, 출세주의자들의 정치가 오늘의 참담한 결과를 낳은 것이다. 현장과 민생을 외면한 채 '묻지마 야권연대'에 목을 매달고, 정리해고와 비정규직 악법을 만들었던 세력들과 연대하며 권력만을 쫓았던 이들의 '묻지마 통합'으로 노동정치는 처절하게 무너지고 말았다.

## 2. 노동운동은 무엇을 했는가?

군사독재정권을 뒤흔들었던 1990년대 초 전노협이 투쟁과 김영삼 정권의 신자유주의 세계화를 뒤흔들었던 1996~97 민주노총의 총파업은 이제 흘러간 노래가 되었다. 2006년 비정규직법에 맞선 민주노총 파업과 2007년 한미FTA 저지 금속노조 파업 이후 5년 동안 민주노총은 식물노조로 전락했다. 그 이유는 간단하다. 이명박 정권은 노동자와 서민의 호주머니를 털어 재벌과 부자의 공간에 퍼부었고, 저항하는 노동자들을 특공대를 동원해 진

압했으며, 전임자 임금금지와 복수노조 창구 단일화로 민주노조를 무너뜨렸다. 살인정권에 맞서야 할 민주노총은 2008년 촛불항쟁과 2009년 용산 철거민 학살에 투쟁의 주체와 연대세력이 아니라 구경꾼에 지나지 않았고, 2009년 쌍용차 77일 점거파업, 2010년 현대차 비정규직 25일간의 점거파업에 투쟁의 당사자가 아니라 중재자로 전락했으며 2011년 김진숙 지도위원의 309일 고공농성과 희망버스에도 무기력했다. 급기야 민주노총은 올

해 총선에서 현장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야권 연대라는 이름으로 노동자들의 등 뒤에서 칼을 꽂았던 사람들, 재벌의 친구들인 국민참여당과 합당한 통합진보당을 지지하며 투표를 강요했다. 열정과 헌신성이 사라지고, 관료주의와 종파주의로 무너진 노동운동은 의회주의와 출세주의에 빠진 진보정당운동의 위기를 더욱 가속화시켰고, 마침내 진보정당운동은 노동자들에게 버림받았다.

## 3. 어떻게 현장을 다시 조직해야 하는가?

희망은 투쟁하는 현장에서부터 만들어지고 있다. 경찰의 폭력에 맞서 23번째 죽음을 막겠다며 온 몸으로 저항했던 쌍용차 노동자들이 정리해고의 문제를 전국적 관심으로 만들어냈고, 현대차 비정규직 노동자들과 학습지노조 재능교육 노동자들이 모든 사내하청 정규직화와 특수고용 노동자들의 노동3권 문제를 사회적 의제로 만들어내고 있다. 전국에

100여 개에 달하는 노동조합이 복수노조 창구 단일화라는 악법을 이용한 노조죽이기에 맞서 민주노조를 지키기 위한 싸움을 전개하고 있으며 20여개의 투쟁사업장 노동자들이 스스로 모여 공동투쟁을 전개하고 있다.

투쟁하는 노동자들, 현장의 신뢰받는 활동가들과 함께 무너진 노동현장과 민주노조를 다시 일으켜 세워 전국적 연대투쟁 전선을 복

원하기 위해 싸워야 한다. 그동안 민주노총과 노동조합 집행부만을 비난하고, 다른 정파들에게 책임을 돌리며, 지도부의 잘못을 바로 잡기 위해 헌신적으로 싸우지 못했던 과거를 반성하며 다시 시작해야 한다. 현장과 지역의 조합원들과 함께 토론하고 함께 실천하면서 무너진 노동운동을 현장에서부터 복원시키는 변혁적 현장실천의 행진을 시작해야 한다.

## 4. 어떻게 노동정치를 다시 시작할 것인가?

민주노총은 8월13일 중앙집행위원회를 열어 통합진보당 지지 철회를 결정했다. 그러나 지난 총선에서 민주노총 지도부는 조합원들의 격렬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통합진보당 지지를 강행했다. 민주노총을 망치고, 진보정치운동을 무너뜨린 이들이 앞 다투어 새로운 진보정당을 만들겠다고 하고 있다. 처절하게 싸

운 비정규직을 외면했고, 노동운동과 진보정당을 출세의 도구로 이용했던 사람들이 새로운 진보정당을 하겠다고 나서고 있다. 그러나 더 이상 노동자들을 속일 수는 없다. 노동자들은 투쟁하는 노동자의 뒤에서 거래하는 정치가 아니라 온 몸으로 연대하며 싸우는 정치가 필요하다는 것을 온 몸으로 느끼고 있다.

현장에서부터 다시 시작하는 노동정치는 자본주의 체제를 변혁시키고, 노동자계급 중심성을 확고히 하며, 의회주의를 넘어 거대한 대중투쟁을 만들어내고, 제국주의에 맞서 싸우고 국제연대하는 노동자계급정당이어야 한다. 현장에서 치열하게 싸우고 있는 노동자들이 진정한 정치의 주체로 나서야 한다.

## 5. 대선투쟁을 어떻게 할 것인가?

통합진보당을 만들었던 세력들과 민주노총의 일부 세력들은 노동과 민생을 외면한 야권연대의 처절한 패배를 경험하고서도 또 다시 대선에서 '진보적 정권교체'라는 이름으로 노동자들을 현혹하며 '닥치고 정권교체'를 호도하고 있다. 이들은 총선에 이어 대통령선거를 노동자들의 거대한 파업투쟁과 대중투쟁의 공간으로 활용하는 것이 아니라 표찍는 기계로 전락시키려 하고 있다.

대선출사표에 정치라는 단어가 17번 나왔지만 노동과 비정규직이라는 단어는 한 글자도 없었던 안철수 후보는 "성장 없는 경제민주화는 바퀴가 하나밖에 없는 자전거"라며 국민의 세금을 털어 재벌의 공간을 가득 채웠

던 이명박의 정책을 답습하고 있다. 민주통합당 문재인 후보는 "노숙도 일정한 고통분담을 해줘야 될 것 같다"고 말했다. 50년 만에 정권교체를 이뤘던 김대중 정권이 가장 먼저 요구한 것이 노동자 고통분담이었고, 가장 먼저 한 일이 정리해고법과 파견법 제정이었다. 그 결과는 쌍용차 22명의 비극적인 죽음이었다고, 900만 비정규직과 청년실업이라는 고용지옥이었다.

지금 이 땅의 노동자들은 유럽에서 시작된 경제위기가 전 세계로 확산되고 있는 것을 보며 1998년 구제금융사태의 고통스런 기억을 떠올리고 있다. 올해 초 그리스와 스페인의 경제위기는 노동자들이 100년의 투쟁을 통해

축적한 권리가 하루아침에 박살난다는 것을 선명하게 보여주었다. 경제공황의 시대에 '닥치고 정권교체'가 또다시 얼마나 많은 노동자들에게 희생과 양보를 강요할 것인지 노동자들은 온 몸으로 느끼고 있다.

쌍용차 노동자들의 더 이상의 죽음을 막기 위해 온 몸을 던져 함께 싸우는 노동자대통령, 10년 동안 불법고용으로 비정규직을 착취해온 정몽구 회장을 구속시키고, 재벌의 불법 축적재산을 환수해 모든 비정규직 정규직화를 요구하며 함께 투쟁하는 노동자대통령, 한반도를 전쟁의 위험으로 내몰 제주해군기지를 막아내고 평화와 통일을 위해 싸우는 노동자대통령을 만들어내야 한다.



# 정리하고 비정규직 투쟁을 전국적 전선으로

## 현장에서부터 파업투쟁과 직접행동 ... 전국 투쟁을 만드는 대선투쟁

이른바 박근혜 대세론이 흔들리면서 대선정국이 요동치고 있다. 그와 함께 모든 관심사가 문재인과 안철수 사이의 후보단일화로 모아지고 있다. 계급정치, 노동정치는 실종될 위기에 처해 있다. 상황이 이 지경에 이르게 된 결정적 원인은 지난 15년에 걸친 진보정치 운동의 파산에 있다. 그들 운동이 노동자계급을 배신한 데 있다. 그런데도 그 운동을 이끌었던 세력들과 주역들은 여전히 야권연대에 매달리고 있으며 후보단일화의 한 자락이라도 붙잡기 위해 용 쓰고 있다.

반면, 자본가들에게 정리하고 당하고, 비정규직의 고통을 감내하고 있는 노동자들, 온갖 노동탄압에 맞서 투쟁하고 있는 노동자들은 여전히 길거리에서 투쟁하고 있다. 투쟁기간이 7년이 넘는 코오롱 노동자들과 22명의 동지들을 죽음으로 내몬 정권과 자본의 천인공노한 만행에 맞서 투쟁하고 있는 쌍용차 노동자들, 그리고 비정규직, 특수고용 첼페를 외치며 투쟁하고 있는 현대차 비정규직 노동자들과 재능교육 노동자들이 계급적 대의를 위해 투쟁전선을 외롭게 지키고 있다.

### 정리하고와 비정규직 투쟁 전선

이것이 현재 대선정국에서 보여주고 있는 노동과 자본의 화해할 수 없는 첨예한 대립을 드러내는 것이다. 하지만 노동자 투쟁의 조직자고 지도부가 되어야 할 민주노총은 투쟁의 지도부 역할을 회피한지 오래되었고, 민주당과 같은 자본가 정당에 대한 지지부대로 노동자들을 몰아갔다. 마치못해 통진당에 대한 지지를 철회했지만 사실상 '식물노총'으로 전략한지 오래다.

민주노총 상층 지도부들은 기존에 자행했던 야권연대에 대한 철저한 반성도 없었고, 그렇기에 노동자 독자 정치세력화를 위한 어떠한 실천도 진행하지 못하고 있다. 통진당 지지 철회의 당연한 귀결로써 대선에서 "사퇴하지 않는 노동자 독자 후보"를 노동자후보로 세워야함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결정도 내리지 못하고 있다. 입으로는 노동중심성을 말하면서도 야권연대를 통한 자본가정당과의 정책연합을 기대하고 있는 이들은 사실상 이미 파탄 난 진보정치 운동의 끝자락을 붙들고 또 다시 노동자계급을 혼란에 빠뜨리고 있다. 그들은 과거 김대중, 노무현 정권 내내 당하고도 또다시 '정권교체'의 달콤한 약속이 노동자들에게 삶을 나아지게 할 것처럼 허튼 망상을 퍼뜨리고 있

다.

### 정권교체가 노동자의 삶을 나아지게 한다고?

2013년은 자본주의 위기가 전 세계적 차원에서 더욱 본격화, 첨예화 될 것이 거의 확실하며 그에 따라 지배계급의 노동자계급에 대한 전면적 공세와 탄압이 더욱 기승을 부릴 것 또한 분명하다. 지금

다.

노동자계급은 대선 이후 들어설 새 자본가 정부의 공격에 맞서 싸울 의지와 투쟁력을 이번 대선국면에서 키워야 한다. 이를 위해 쌍용차 투쟁을 중심으로 한 정리하고 첼페투쟁, 현대차 불법파견 투쟁을 앞세운 비정규직 첼페투쟁, 그리고 17개 투쟁사업장 공동투쟁단이 벌이고 있는 노조탄압분쇄 투쟁 등을 확대, 강화하는 것을 통해 강력한 전국투쟁전선을 형

책협약으로 묶일 수 없는 노동자계급의 독립적 요구를 전면에 내세우고 전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러할 때만이 이들 투쟁이 노동자계급의 독자적인 정치적 독립성을 획득하면서 대선 국면에 묻히거나 국회와 자본가 정치권에 의해 기만적으로 봉합되는 결말을 막을 수 있다.

### 반자본주의 대중투쟁 전선

"변혁적 현장실천과 노동자 계급정당 건설을 위한 전국활동가 모임"은 반자본주의 대중투쟁전선을 조직하기 위해 일차적으로 쌍용차, 현대차비정규직, 공동투쟁단 투쟁을 함께 책임지고 투쟁해 나갈 것이다. 그리고 10월 27일 비정규직대회, 11월 노동자대회를 반자본주의 대중투쟁으로 만들어 가면서 대선을 돌파해 나갈 것이다. 정권과 자본에 맞서 최전선에서 투쟁하고 있는, 이들 투쟁을 중심으로 파업투쟁, 직접행동, 현장투쟁, 거리투쟁을 전국적 차원에서 벌여 나가고자 한다.

현장의 동지들도 "변혁적 현장실천과 노동자 계급정당 건설을 위한 전국활동가 모임"과 함께 투쟁전선을 함께 조직해 나가자! 먼저 쌍용차, 현대차비정규직, 공동투쟁단 투쟁을 조합원들에게 알려나가고, 1인 시위와 집회, 항의방문 조직과 모금운동 등 현장에서 진행할 수 있는 사업들을 계획하며 진행시켜 나가자! 다음으로 10월 13일 전국 활동가 대회와 10월 27일 비정규직 대회, 그리고 11월 노동자대회 참여를 적극 조직해서 반자본주의 대중투쟁으로 만들어가자!

이러한 투쟁들을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책임감 있게 조직할 때만이 노동자들을 자본가들의 지지부대로 내모는 야권연대, 비판적 지지의 망령에서 벗어나서 노동자 계급이 정치적 주체로 나설 수 있다. 민주노총이 민주당 지지부대로 스스로를 제한하면서 진행하려는 정책협약을 파탄낼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투쟁들을 통해서 자본가 계급에 맞선 노동자 투쟁을 승리로 이끌 수 있다.

900만 비정규직, 광범위한 미조직, 청년실업, 자본주의 체제에 가장 억압당하고 염증을 느끼고 있는 민중들을 노동자 투쟁으로 묶어세우자.

무너진 계급정치, 노동정치를 새로 세우는 길은 현장으로부터, 아래로부터 계급적, 투쟁적, 변혁적 대안투쟁을 건설하는 것이다.



“

900만 비정규직, 광범위한 미조직, 청년실업, 자본주의 체제에 가장 억압당하고 염증을 느끼고 있는 민중들을 노동자 투쟁으로 묶어세우자.

무너진 계급정치, 노동정치를 새로 세우는 길은 현장으로부터, 아래로부터 계급적, 투쟁적, 변혁적 대안투쟁을 건설하는 것이다.

”

대선을 둘러싸고 지배계급이 앞 다투어 말하고 있는 '경제민주화', '재벌개혁', '복지확대' 등은 그러한 공세와 탄압을 가리기 위한 '정치적 수사' 내지 노동자계급에 대한 '선제조치'에 불과하다. 이런 정세 아래에서의 '정권교체', '연립정부' 등을 말하는 것은 사실상 노동자계급의 무장해체를 주장하는 것에 다름 아니

성할 수 있도록 하자. 이것은 노동자계급이 이번 대선정국을 끝까지 사퇴하지 않고 투쟁하는 노동자후보전선과 대중투쟁이 하나 되는 것을 통해 반자본주의 투쟁전선을 구축하는 계기로 삼을 수 있을 때 가능하다.

이러한 투쟁이 완주하는 노동자대선후보 전선과 하나가 되어 자본가 정당과 정